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3 권 5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집회 3,2-6.12-14	▶제 2 독서	콜로 3,12-21	
<b>화답송</b>		<b>복음환호송</b>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복음	마태 2,13-15.19-23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b>영성체송</b>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월 29일	전 니콜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월 5일	유 요한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월 12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월 19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월 22일	\$365.00	-	\$40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새해 미사 시간 안내

1/1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9시(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성령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8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하오니, 기도회 단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리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

견진성사를 준비하시고 싶은 분 또는 교리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해 주십시오.  
교재: '발에 묻힌 보물' (지은이: 차동엽 신부)  
참가신청 및 문의: 유 요한 교육부장님

공동체 소식

평협임원회의: 1/14 (화) 저녁 8시

1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가 둘째 화요일인, 1월 14일 (화) 저녁 8시에 성당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소구역 공동체 모임: 1/19 (주일) 주일미사 후 친교실

1월달 소구역 공동체 구역모임은 셋째 주일인, 1월 19일 주일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한인 공동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매주 있을 예정입니다..  
기간: 2014년도 1월 첫째주일부터 4월 부활절까지  
주제: 가톨릭 교회의 핵심교리. 교재: '하느님을 향하여' (지은이: 최기산)  
내용: 매 주일미사후 친교실에서 15분가량 교재를 구역별로 모여서 읽음 (셋째 주일은 소구역 공동체 모임).  
평가 및 포상: 부활절 퀴즈대회후 신부님께서 포상.

영성영화감상: 1/26 (주일) 주일미사 후

영화제목: 타이타닉 (1996)

기도부탁드립니다.

병환 또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 있는 분들과,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공지사항

주보에 공지할 사항(예: 새로운 신자, 신자 경조사, 모임 등)이 있으면, 손 아놀드에게 메모나 이메일 (vs7son@gmail.com)으로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주일 주보 공지사항 마감일은 목요일까지입니다.

말씀의 이삭

믿을만한 사람

박용만 실바노니 두산 회장

우리는 신뢰할만한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 믿을만 합니다. 그 친구 누나가 우리 사촌 형과 결혼했어요.", "그 친구 믿으셔도 됩니다. 저랑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 믿을 만합니다. 저랑 같은 교회 신자거든요." 이렇게 혈연, 학연, 지연으로 대변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대체로 미더워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리더쉽의 자리에 오르면,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점차 그러한 '관계중심의 사회'에서 '원칙중심의 사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정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실수를 인정하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대부분 숨기려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만이 알고 넘어가는 실수란 많지 않습니다. 곁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실수는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숨길수록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회사, 공동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집단이 되려면,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모아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내 구성원이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너그러운 룰을 적용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신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은 점차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여유가 생기고, 약속은 지킬 수 있게 되니 믿을만한 사람들로 변해 갑니다. 아무리 품성 좋은 사람들을 모아 놓아도 실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고, 약속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면, 품성 좋은 사람들조차도 점차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습니다. 고백성사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느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니, 이보다 더 실수를 인정하기 쉬운 일이 없습니다. 또한 고백성사는 또 다른 신앙적 성장을 위한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그 모두를 인자하게 들어주시고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 자체가 정말 선진화된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소에 들어서서 "휴, 사는데 그냥 죄지요!"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우스개 소리들을 합니다. 이런 실수의 인정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를 하느님이 주신 생명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백은 늘 하지만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며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만 노력을 안하는 것이니, 결국 하느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이런 우리를 다 믿어 주십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정말 선진화된 룰을 가지신 분입니다.  
-서울주보에서-

Happy New Year!

새해 주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